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 담임목사에 김성관 목사 청빙키로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찬성자가 2/3선 넘어 결정  
앞으로 청빙에 따른 모든 절차 마치고 곧 부임할 듯



교회는 지난 주일(5월 11일) 공동의회를 갖고 당회에서 새로운 담임목사로 청빙키로 한 김성관 목사(사진)에 대

한 청빙을 물어 참석회원의 3분의 2선을 넘어 충현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청빙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곧 부임할 예정이다.

김성관 목사(만 55세)는 김창인 원로목사의 둘째아들로,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ROTC 3기로 근무, 육군 중위로 예편 후 대한제지 기획관리실, 중앙그룹 회장 비서로 일하다가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지금까지 살고 있다.

1973년부터 15년간 미국 리그은행에서 근무하며 재정담당 수석부사장의 직책으로 일했고 기간 중 조지아대학에

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또한 투자 효율, 투자위험분산 자문업무, 벤처 기업의 육성, 창업투자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한 공동저서를 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주위에서 기도해온 대로 1991년 한국에 돌아와 충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이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교학을 전공하여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다(금년 8월 수료 예정이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천우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했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는 시카고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교민을 상대로 하는 전도, 교육 사역을 계속해 왔다.

가족으로는 이귀자(만 54세) 사모와 현재 시카고대학에서 의학, 철학박사 과정을 이수 중인 아들 지일 씨(만 29세)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딸 에스더(만 17세)가 있다.

## 97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오늘 저녁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다음 주일 1~4부예배시간에는 성찬식

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금년도 두번째로 실시하는 학습·세례식을 갖는다.

학습·세례식을 위해 교회는 지난 5월 4일, 11일 두 주일에 걸쳐 교육 및 문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늘 학습·세례식에서는 지난 주까지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이 학습 및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오늘 학습 및 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자들은 예배 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나와야 한다.

다음 주일은 주일 1~4부예배시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한 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다.

### 남녀전도회 회원을 위한 영성훈련

5월 25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전도위원회는 남녀전도회에 보다 활력을 주고 전도회 본연의 임무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남녀전도회 회원을 위한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영성훈련은 5월 25일(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박형용 목사(협동목사, 장년1부 지도)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남녀전도회 임원 및 관심있는 회원들로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통해 전도 사명을 일깨우고 복음전파와 교회의 부흥에 헌신과 열심을 다짐케 하려고 하고 있다.

### 97 충현선교대회 선교보고 및 선교사와의 대화 시간

오늘 오후 2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오늘, 5월 18일(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선교보고 및 선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갖게 된다.

이 시간에는 각 개인이 직접 선교사들에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할 수 있다.

### 베드로연합회 주최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세미나 -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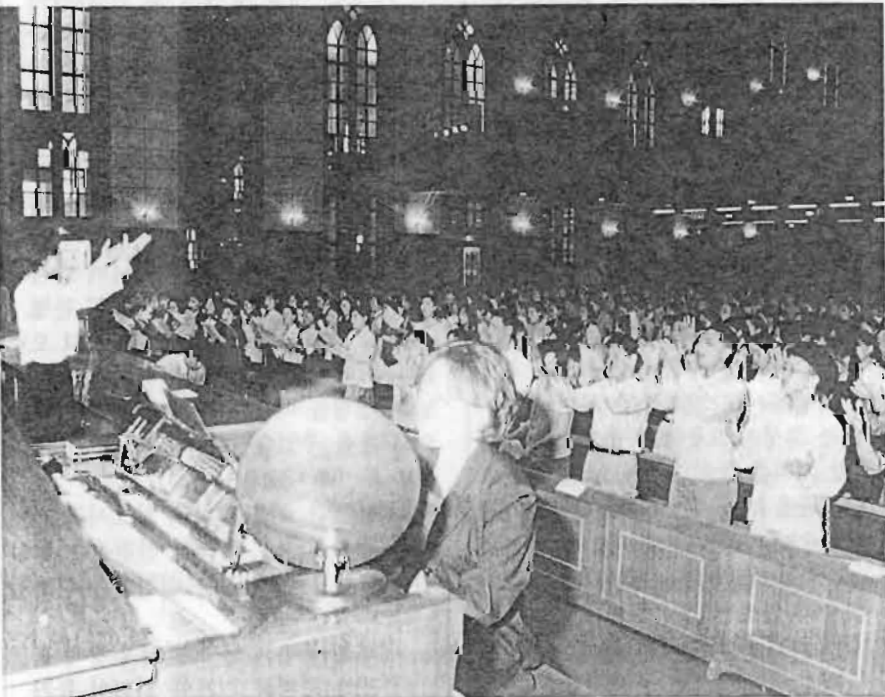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베드로연합회가 주최하고 베드로6지회가 주관하는 부부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만들기로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대화, 애정표현, 부부간의 문제해결, 부부생활에 대한 이해 등을 다루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족중 믿지 않는 남편, 아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자연스럽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 전도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전도하는 전도회' 열매 맺

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로 성원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 1997년 5월 19일(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충현교회 갈릴리홀  
강사: 채규만 교수  
· 충현교회 예신부 강사  
·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 당일 저녁식사는 300명분이 준비되어 있다. (만나홀 오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식사 가능)



### 충현 젊은이 헌신예배

지난 주일(5월 11일) 저녁 찬양예배는 대학부와 청년 1, 2부 연합의 충현 젊은이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이 헌신예배는 5월 한달동안 '충현 젊은이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게 될 각종 행사에 앞서 젊은이들의 정성을 주께 드리기 위한 시간이었다. 대학부와 청년 1, 2부 회장들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서는 본당 앞 좌석 두 블락을 채 채운 청년들의 독송시간이 있었으며 대학부 지도 교역자인 장봉생 목사가 '충성의 언약에서'라는 메시지를 청년과 장년들에게 강한 도전과 교훈을 주었다. 5월 한달동안 계획된 청년들의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청년들이 주의 장전된 용사들로 사세 에 교회와 나라를 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글/정병수 기자, 사진/장대선 기자)





충청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시편 50:16-23)

## 1. 악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본문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나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악인은 성도를 가운데 평교인이 아닌 장로나 목사 등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자기들을 정통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졸도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조상을 팔아 먹고 교파를 팔아 먹는, 너희의 마음 속에 악마가 깎차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설교하는 교역자나 가르치는 스승들을 지칭하여 악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삽은 사울 왕을 따라다니면서 아침하며 별의 별 짓을 다하는 제사장 무리들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저주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하물며 어미의 자식, 동생들을 저주하고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자신과도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되며 사람끼리도 화목을 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끼리 싸우고 교역자끼리 싸우고 교회가 모이면 싸우고 노회가 모이면 싸워서 교파가 갈라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축복만 있어야 되는데 저주가 웬말이며 정직한 말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웬말이고 화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간질하는 말이 웬말이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짓말 뒤에 숨겨놓은 죄, 권세 뒤에 숨겨놓은 죄를 내가 하나하나 만민 앞에 드러내리라. 진짜 예배를 못드리는 지도자는 그 잘못으로 교인들이 잘못 되느니라. 그러므로 진짜로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지도자,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거스리는 종, 악하고 음란한 종은 내가 그들의 숨겨 놓은 죄를 천하만민 앞에 다 드러내고 처리하겠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 2.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 (1)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짜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나 신자들은 왜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겠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다가 좋은 것을 모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다면 누가 뭐래도 죄악으로 굴러가지 않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이 잘되어도 감사하지 않고 교만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조그만 틈만 생겨도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날 때는 회개하지 않고 요리조리 핑계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살 결심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돈 따라가면서, 친구따라서, 인정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는 깨닫고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만일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찢으시는데 하나님이 찢으시면 안 찢어질 자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영이 밤에 이르면 양심도 밤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육신도 밤이 됩니다.

하나님은 600년 동안 범죄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를 범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어 경고를 하시고 야 매리십니다. "여러분은 600년 동안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는 부드러운 설교가 아닌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하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의 교만쟁이들이 너도 나도 땅에 무릎을 꿇고 모두 회

이제라도 성도가 회개하며 감사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세 가지로 구원하십니다. 첫째,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케 하는 구원을 주십니다. 둘째, 현재의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주십니다. 셋째, 장래의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천사가 직접 갔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천사가 직접 갔어도 회개하지 못한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에 타고, 도망 가던 요나가 갔어도 회개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한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용은 다 뿔아버리고 형식만 갖추고 예배를 드리면, 알곡과 쭈정이가 비록 한 눈에 있고 한 이삭에 달려 있지만 가율이 되어 거둬 들이시면 알곡과 쭈정이는 갈라 놓듯이, 때가 되면 잘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을 갈라 놓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찢으시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만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하면 낙제를 하고 농사짓는 농부가 여름에 놓고 지내면 거울에는 굵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기회를 놓치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오는데 하물며 성도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마중 나갈 기회를 잘 준비하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 (2)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면서 예배당으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나오는 교회,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많

아도 용서하시고 회개하여 감사하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일을 결코 잊으면 안됩니다.

이제라도 성도가 회개하며, 이제라도 감사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세 가지로 구원하십니다. 첫째,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케 하는 구원을 주십니다. 둘째, 현재의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주십니다. 셋째, 장래에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십 년 가까이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는 다윗이 복받는 것과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가짜 예배를 드리고 맹세를 지키지 않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도 분명히 보고 뼈저리게 느낀 아삽은 오고 오는 후세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편 50편을 기록하여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편 50편은 너무나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선전을 원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는 실천을 원하십니다.

부족한 종은 한국 교회의 찬송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 기도예 열심이 붙기를 원하고 헌금 바치는 일과 전도하는 모든 일에 최고의 정성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



◇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



##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

박정환

(목사, 17교구·찬양위원회 지도)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연령과 수준에 따라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내용 중 첫번째는,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둘째는,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즉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중의 하나는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배우는 삶 중에 생명과 관계가 있고 인격과 도덕적인 선악의 구별점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삶의 근본적인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스승의 원어로써 '디다스칼로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사, 박사, 주인, 선생,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의무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노련하고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잠언 8장 10절의 말씀의 뜻은 은이나 정금보다 지식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탕진할 수도 있지만 지식은 결단코 잃어버리

거나 파산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교육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적 문제점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가정은 교육의 현장으로서 자녀에게 습관, 예의, 인격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의 가정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너무 바빠서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인해 그 반작용으로써 자녀를 과잉보호하게 됩니다. 과잉보호받는 자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박약합니다. 이기적이고 협동심이 부족합니다.

셋째로는 맹목적인 자녀교육입니다. 교육의 목적을 모르고 여러 가지를 배우느라 자기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성적만을 위한 교육으로 과외만능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현대교육의 문제는 부모가 스승의 자리에서 교육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격의 교육에 관해서 부모로서 지니는 스승의 위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서 스승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녀가 끝까지 모시고 섬기며 따르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녀는 건전한 가르침과 진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좇아갑니다. 또한 스승관이 없어 집니다. 스승을 외면하고서는 진리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십니다.

참 스승이시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실수와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눈물로써 가르치셨던 지혜와 사랑의 교사이셨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교사이셨습니다. 참 스승, 참 목자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십시오.

✽ 청송교도소 전도집회를 다녀와서 ✽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석태임

(집사, 아멘찬양대원)

4월 18일 금요일 때르릉, ... 새벽 4시 30분.

오늘은 교정전도회의 청송제2교도소 특별전도집회에 남편과 함께 참여하기로 한 날이다. 내가 오늘 왜 왕복 15시간이나 걸리는 그곳에 가야 하는지, 마음한 구석에는 가기 싫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와 본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던가? 그래! 가야 한다.

교정전도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차에 싣고 출발하니, 새벽 6시 30분.

아멘찬양대원으로서 교정전도회원들과 함께 청송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순서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25명의 찬양대원들과 28명의 전도회원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적당한 수를 채워 주셨음이 분명하다.

과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도소는 어떠한 곳일까 궁금하다. 지도 목사님과 회장 장로님이 교정전도회에 대한 소개도 하시고 전도회의 비전도도 보여준다. 교정전도회는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 이 사회의 아들과 숨겨진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인데, 집회초청 전도방법, 소그룸에 의한 면회심방, 상담, 구제 방법 등을 동원하여 말씀을 먹여야 하므로 전도요원이 필요하며, 이 일을 지원할 물품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 이 시대의 전도는 말로써 하는 전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깊이 공감함을 하며, 그러기에 중헌교회에 교정전도회가 생긴 것이 정말 감사하다.

창 밖으로는 파릇한 4월의 새싹들이 보이고 화사한 봄꽃들도 인사를 한다. 마치 지금 새로 태어난 교정전도회가 이와 같은 새싹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간 휴게소에서는 준비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식당 2층에 있는 빈 홀에서 오늘 부를 찬양을 다시 맞추어 보며 은혜가 충만함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출발. 오후 1시가 되어 진보면 소재지를 지나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아무런 간판도 없는 15자 높이의 담장에 둘러싸인 회색 건물, 청송교도소였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교도소. 몇 개의 철문을 통하여 들어간 복도에 간간히 아주 짧은 머리에 파란 복장과 흰 운동화 차림의 사람들이 눈에 띈다.

눈길을 피한 채, 혼자 밥을 먹고 아무말 없이 강단에 준비해 놓은 찬양대석에 앉는다.

강단 뒷 벽면에는 재소자들이 밤새 준비했다는 특별전도집회 프랭카드가 보이는데 우리 옆에 가득히 앉아 있는 남자들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조금 후에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재소자를 보는 순간, 그 모습 위에 지금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나의 동생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

"오! 주님 안돼요. 저기 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눈물과 꽃물로 내 얼굴은 이미 범벅이 되고 있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한 것 같았다. 온통 자비와 긍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나사르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요 11:33)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것 같았다.

또 주님이 살리신 나사르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채 무덤에서 일어나오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요 11:44)고 하신 말씀도 생각났다.

"태임아 저들은 죄수가 아니란다. 네가 이 세상에서 것처럼 사랑하는 너의 동생처럼 저들은 바로 너의 형제란다."

저들에 대한 나의 편견과 선입관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저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나의 불안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미 나의

눈은 사랑과 긍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오히려 저들의 얼굴에서 신함과 어린아이가 같은 순진함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 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 얼굴에

세 수건을 벗겨야 한다.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사랑으로 저들의 아픈 상처를 씻겨야 한다. 예매가 시작되고 준비한 찬양을 정성껏 드린 후에 목사님이 예수님은 길에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을 증거하셨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초청한 결과 27명의 결신자들이 손을 들고 일어섰고, 부끄러워 손을 들지 못하고 앉아서 목사님의 회개와 영접기도를 조용히 따라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 나는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예매가 끝나고 나가는 내 등 뒤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조심해서 가이소"

주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오며 느껴졌다. 오는 길에는 마음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실제적인 주님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한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은 우리를 태운 버스를 운전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급제하셔서 더이상 운전을 못하실 뿐 아니라, 온몸이 다 창백해지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태까지 되어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였고, 동행한 성도님 중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분도 예비하신 바(바로 전주일에 입회 후 동참-)되니, 버스 안은 금방 통성기도 강소로 변했고,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이 있는 안동시를 지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냥 통과할 것을 결정하신다.

세시간쯤 후에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저녁 8시, 이 시간은 중헌교회의 금요찬양집회 시간. 버스 안에서 찬양집회가 이어졌다. 목사님의 말씀 증거와 몇분의 신앙간증 후에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니, 온통 부흥회 장소가 되었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는 시간이 되었다.

10시 30분 버스는 어느덧 교회 본당 앞마당에 우리를 내려 놓는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정전도회를 세우시고 동참케 하신 주님, 감사함을 나타내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귀함을 알았습니다."

말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오늘 엄마는 반가운 표정을 짓고 나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단다. 지회야! 하나님은 오늘 엄마의 마음에 예쁜 사랑의 씨가 돌아나게 하였고 참으로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마 25:35-41)



# 취재수첩

어버이주일을 맞아  
대학부 학생들이  
소망부 회원들에게  
꽃을 달아준다

지난 5월 11일(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대학부 회원들이 소망부 회원(70세 이상)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소망부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약20명의 대학부 회원들이 갈릴리움 앞에서 소망부 회원에게 꽃을 달아드렸고 집회순서가 끝난 후에는 대학부의 찬양팀이 와서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새가정부의 특강은?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주일 박형용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내가 가정을 세로 꾸민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시간을 가졌다. 박형용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남편과 아내로서 지혜롭고 합당한 모습들을 갖출 것을 당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를 아



름답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가정부의 대상은 신혼부부 및 가정을 이룰 지 수년안에 있는 가정으로서 주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도하고 있다.

예배와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예배시간 중 어린 자녀들이 놀수 있는 영아실도 준비되어 있다. 집회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201호이다. 관심있는 '새가정'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장년3부에서도 특강

지난 5월 11일(주일) 장년3부 집회에서는 구명선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특강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생활에 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며 특강을 계기로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다. 장년3



부의 완숙한 가정생활 위에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한다.

## 김수지 교수의 특강 청년2부

5월 11일(지난 주일) 청년2부(30-39세)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 - 6장 4절'의 말씀과 '행복한 가정 생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김수지 교수가 특강을 했다.

강의 내용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살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다. 이같이 부부도 서로에게 바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밝은 자화상을 가져야 상대방도 밝게 보인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어두운 자화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나를 밝은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벧전 2:4).

넷째, 부부는 서로간의 대화의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느끼는 느낌도 표현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부부가 올바르게 행복해야 자녀들도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모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원리,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 경찰 선교의 밤

5월 8일 충주 중앙경찰학교

경찰전도회(회장 이갑재 장로)에서는 지난 5월 8일 오후 6시 30분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경찰 선교의 밤을 은혜스럽게 개최하였다.

먼저 1부에서는 대학부 시심나찬양대, 루디아중창단, 남성중창단, 이옥주 집사의 특송으로 은혜스러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이갑재 장로님의 기도와 김송자 집사의 특송이 있은 후 김희수 목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경찰 선교의 밤은 찬양과 말씀 선포를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전도의 장이 되었다. 경찰전도회에서는 믿지 않는 경찰, 전·의경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실업인전도회의 지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다. (글 / 박주영, 정병수 기자, 사진 / 이운구 기자)

## '97 중헌 젊은이와 함께

목표 2000-주수금작전

5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 명동 총동원전도

## 명동 전 지역에서 전도

명동 전체를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대학, 청년1·2부 전 회원이 참여해 전도활동 벌여

'97 중헌 젊은이와 함께의 행사 진행 본부는 오는 5월 20일(화)에는 시내 명동의 전 지역을 전도하는 총동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부, 청년1·2부 전 회원이 동원되어 명동을 총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도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요소요소마다 찬양팀을 동원하고 그 주위에서 찬양하고 개인전도 및 노방전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다. 모든 전도가 마쳐진 다음에는 각 팀별, 조별로 모임을 갖게 된다.

'97 중헌 젊은이와 함께 행사가 점점 열기를 띠어 가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 오던 행사들을 하나씩 실시해 나가면서 지난 주일 저녁 중헌 젊은이 헌신예배에 이어 5월 12, 13일 양일간 중헌 젊은이 세미나를 갈릴리움에서 가졌다.

5월 11일 헌신예배는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본당의 앞쪽에 자리하고 앉아 예배를 드렸다. 대학부 회장, 청년1·2부 회장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청년, 대학생 전원의 찬양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대학부 지도인 장봉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중헌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세미나 첫째날(12일, 월) 허문영 박사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통일관과 접근 방법을 강의했다. 매우 복음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된 통일론에 모두 매료되어 시간가는 줄을 모르고 경청할 수 있었다.

통일도 결국은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어 둘째 시간에는 수리남,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의 현지 선교사들의 현지 선교 방법 및 지역 이해를 위한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아주 진지하게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 기독교인의 삶의 뚜렷하고 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날(13일, 화)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 직업을 주제로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의 신앙에 입각한 체험적인 사업운영과 직장선교연구소 소장인 방선기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바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14일(수)에는 고덕동 소재의 광문고등학교(교장 이인상 장로)에서 하루종일 연합체육대회를 갖고 일치와 화합, 친교와 교제, 연합과 비전을 위한 기도회 등으로 보냈다. 이날 오전 개회예배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방문하여 축도하며 기도하며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격려금도 전달하였다.

비가 내렸지만 실내체육관의 좋은 환경에서 또한 오후에는 운동장에서 맘껏 뛰며 일치와 화합의 의미들을 새롭게 했다.

앞으로도 '97 젊은이와 함께 행사는 5월 24일(토)의 알뜰이시장, 전시회, 일일찾집, 5월 31일(토)의 현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문화행사, 6월 1일의 총동원주일을 마지막으로 1개월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 5월 24일(토) / 중헌 젊은이들이 주관하여

굶주린 북한주민 돕기와 선교비 위해

## 알뜰이시장이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회, 일일찾집도 함께 열어

중헌 젊은이들과 부모님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화합과 연합을 도모하며 이 행사를 통해 얻어진 전 수익금은 굶주린 북한 동포와 단기 선교 사역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알뜰이시장과 함께 전시회 및 일일찾집도 열립니다.

### 1. 알뜰이시장

· 일시: 5월 24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교회당 마당  
· 내용: 제제류, 건어류, 과일류, 주방소모품, 잡곡류, 의류, 스포츠용품 등등

※ 알뜰이시장을 위해 기증품을 받습니다. 기증할 물품은 테이프보급소 앞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2. 전시회

· 일시: 5월 24일~25일  
· 장소: 본당 1층 전시장, 교육관과 본당 사잇길, 선교관 1층  
· 내용: 중헌교회 역사(사진전) 세계선교 및 북한 전시 성화 및 청년, 대학부 지체들의 작품 전시

### 3. 일일찾집

· 일시: 5월 24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만나홀 및 알뜰이시장 좌판